

한국의 닭고기 가격 결정 시스템 개선

김 정 주^{1,†} · 강 병 규²

¹건국대학교 생명자원경제학전공, ²건국대학교 대학원 축산경영학과

Improvement in Chicken Meat Pricing System in Korea

J. J. Kim^{1,†} and B. K. Park²

¹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Kon Kuk University, ²Dept. of Livestock Management, Graduate School, Kon Kuk University

ABSTRACT In Korea chicken meat price is not determined in the auction markets, but it is artificially calculated using the live chicken price of one day before, transporting cost, converting rate of live chicken into carcass, and slaughtering cost. This calculated price is published through the mass media and used as the base for chicken meat transaction. By the way, since 85% of the Korean broiler industry is composed by the integrated system, the live chicken price is nothing to do with ex-factory price of chicken meat produced by the integrators. Under this pricing system, when we estimate the margin of the chicken meat through the marketing process, the margin of the integrator is fluctuated by the live chicken price of one day before, which is nothing to do with integrators; When the live chicken price is low, the margin of the integrators is low, but the margin of the selling agencies' is relatively high. On the contrast, when the live chicken price is high, the margin of the integrators is high, but the selling agencies' margin will be relatively low, because consumer's price could not be increased in parallel with increase of the live chicken price. Accordingly, the ex-factory price of chicken meat determined using the production cost of live chicken and slaughtering cost of the integrator by adding reasonable margin of the integrator should be determined and published, so that it could be used for chicken meat transaction. In Japan the Zen-Noh Chicken Foods Corporation announce the ideal piece of chicken every morning, and all the transactions of the chicken meat will be determined based on this price. In Korea, it will be desirable to make bench marking from Japanese case, in other words the NH could announce the ideal price of chicken meat every morning, so that it would be the base price of chicken meat transaction. Even though the market share of the NH is less than 5%, its publicity should be accepted, since it is a subsidiary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of Korea.

(Key words : wholesale market, converting rate, slaughtering cost, ex-factory price, integrator, market share)

서 론

한국에서 닭고기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와는 달리 가격 결정에 중심적 역할을 할 경매시장이 없다보니 닭고기 도매 가격이 없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전날 생닭 가격을 기준하여 인위적으로 닭고기 도매 가격에 해당되는 가격을 계산하여 이를 관련 협회 등이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된 닭고기 가격은 닭고기 유통 상인들의 거래에 기준 가격이 되어 사실상 도매 가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국의 생닭 전체 생산의 85% 정도는 계열화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으므로 닭고기 공급자인 계열업체는 생닭의 시장 가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럼에도 생닭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발표된 가격에 의하여 계열업체의 수익이 좌우된다. 이러한 가격 결정 구조하에서는 육계 유통업자와 육계 계열화 업체간의 이익이 상충되어 갈등이 상존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닭고기 유통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에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닭고기 가격 결정 시스템을 바로 잡아 부당하게 손해를 보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닭고기 유통 단계별 가격 결정 시스템을 분석하고 양계 선진국(미국, 일본)의 가격 제도를 검토하여 선진국형 닭고기 가격 결정 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이다.

[†]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 jjkim@kku.ac.kr

자료 및 방법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먼저, 육계 및 닭고기 관련 선행 연구를 심층 검토(Review)하였다. 다음으로 한국 생닭 및 닭고기 가격 결정 구조 및 육계 유통 관련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단독경영 생닭 생산농가 및 단체(계육협회, 양계협회), 계열화 참여 농가 및 업체 임직원, 유통 상인, 정책 입안 및 시행자(농림부, 농협)등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현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 이들 단체와의 공청회를 통하여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의 문제를 토론했었고, 미국과 일본의 가격 결정 체계를 소개하여 현재의 가격 결정 체계에 있어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육계 산업의 현황

1) 육계 생산

2007년 12월말 현재 한국에서 육계 3천수 이상 사육하는 육계 전업농가수는 1,370호인 것으로 추산된다. 규모별로는 3~5만수 사육 농가가 가장 많고(39.8%), 다음이 5만수 이상 사육 농가(29.7%)이며, 1~3만수 사육 농가는 25.8%, 1만수 미만 사육 농가는 4.7%에 불과하다. 이는 2000년에 2,013호 이던 것이 감소한 것이다.

한편, 호당 평균 사육수수는 2000년에 2만2천수에 불과하

던것이 2007년에 4만1천수로 크게 늘어나 육계 산업의 규모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1 참조).

한편, 육계 상시 총 사육수수는 2000년 12월말 45,000천수 이던 것이 2007년 12월말 56,227천수로 증가하였다. 규모별로는 5만수 이상 규모 농가에서 생산된 것이 가장 많고(49.3%), 다음이 3~5만수(36.7%)이며, 1~3만수는 13.4%, 1만수 미만 사육 농가에서 생산된 것은 0.6%에 불과하다(Table 2 참조).

2) 닭고기의 수급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고도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의 향상에 의해 닭고기의 소비 형태가 다양화되고 외식 산업이 꾸준하게 발달함에 따라 닭고기의 수요는 매년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한국의 닭고기 공급량도 2000년 이래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는 닭고기 수입량과 국내 공급량이 증가한 결과이다. 2007년에 공급된 닭고기는 44만6천톤으로 이 중에서 13.5%에 해당하는 6만톤은 수입으로 충당되어, 닭고기 총 공급량은 38만톤에 이르렀다.

한편, 이를 수요 측면에서 보면 2007년 닭고기 국내 총 수요량은 54만7천톤이었으며, 여기에 수출(5천7백톤)을 합하면 총 수요량은 55만3천톤이었다(Table 3 참조).

2. 육계 계열화 사업의 개관

일반적으로 산업은 각 부문이 개별 경영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독립된 개별 경영체는 각자의 영역에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려할 것이기 때문에 생산물의 생산 및 유통 단계마다 이윤이 부과되면 자연히 최종 소비자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타사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이므로 생

Table 1. Broiler growers by farm size in Korea

(Unit: Household, Head)

	Less than 10,000	10,000~30,000	30,000~50,000	Over 50,000	Total	Per Household
2000. 12	641	742	417	213	2,013	22,355
2001. 12	785	713	428	228	2,154	21,198
2002. 12	696	539	483	245	1,963	22,927
2003. 12	373	495	473	270	1,611	27,811
2004. 12	359	441	474	333	1,607	31,190
2005. 12	386	312	548	329	1,575	32,014
2006. 12	66	416	527	382	1,391	39,809
2007. 12	64	354	545	407	1,370	41,042
	(4.7%)	(25.8%)	(39.8%)	(29.7%)	(100.0%)	

Table 2. Chicken number by farm size in Korea

(Unit: Head)

	Less than 10,000	10,000~30,000	30,000~50,000	Over 50,000	Total
2000.12	1,168,214	14,056,311	15,017,300	14,758,430	45,000,255
2001.12	1,641,962	13,293,161	15,483,400	15,241,120	45,659,643
2002.12	771,977	10,585,116	17,689,840	15,957,950	45,004,883
2003.12	470,875	9,167,780	17,142,430	18,022,080	44,803,165
2004.12	844,011	9,103,803	17,907,692	22,266,183	50,121,689
2005.12	678,563	6,485,135	20,656,437	22,601,652	50,421,787
2006.12	345,035	8,684,343	20,051,960	26,293,414	55,374,752
2007.12	335,240	7,516,977	20,637,369	27,737,325	56,226,911
	(0.6%)	(13.4%)	(36.7%)	(49.3%)	(100.0%)

Source: <http://www.naqs.go.kr>**Table 3.** Demand and supply of chicken meat in Korea(2000 ~ 2007)

(unit: MT)

Year	Supply				Demand				
	Import	Domestic	Trans-ferred	Total	Import	Domestic	Total	Export	Stock
2000	67,508	261,500	0	329,008	67,508	259,790	327,298	1,710	-
2001	84,900	266,700	0	351,600	84,900	265,400	350,300	1,300	-
2002	93,842	291,147	0	384,989	93,842	289,294	383,136	1,853	-
2003	88,837	286,482	0	375,319	88,837	284,561	373,398	1,921	-
2004	31,849	287,735	0	319,584	31,849	287,000	318,849	735	-
2005	58,503	300,718	0	359,221	58,503	298,240	356,743	2,478	-
2006	75,575	320,973	0	396,548	75,575	341,274	416,849	2,854	5,166
2007	60,030	380,362	5,166	445,558	60,030	373,757	546,822	5,689	-

Source: <http://livestock.nonghyup.com/common/>

산과 유통 및 판매를 하나의 경영체로 하여금 총괄 관리케 하는 계열화 사업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대기업이 계열사를 거느림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점에서 육계 계열화 사업과 대기업 계열 조직은 유사해 보인다.

이러한 계열화 사업 체계는 수평적 계열화 사업과 수직적 계열화 사업으로 구분되는 데, 수평적 계열화 사업은 같은 종류의 산업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경영을 통합하는 형태(예를 들면 단지화)이고, 수직적 계열화 사업은 한 산업 내부의 각 부문이 경영을 통합하여 비용 절감은 물론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계열화 사업 형태를 말한다.

한국의 육계 산업은 일찍부터 계열화 체계를 도입, 현재

육계 전체 생산의 85% 정도는 계열화에 의하여, 나머지 15% 정도는 단독 경영 농가에 의하여 육계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육 농가는 계열 주체로부터 병아리, 사료, 동물 약품, 난방 연료 등 생산 자재와 기술 지도를 공급받아 자신의 노동력과 사육 시설을 이용하여 사육한 후 계열 주체의 요구에 따라 출하하고 약정된 사육 보수를 지급 받는 형태이다.

한편, 전체 육계 생산의 85%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육계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 농가는 육계 가격과 상관없이 사전에 계약된 일정한 사육 수수료를 받으므로 생닭 가격의 고저에 따라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일정한 체중에 도달한 생닭은 계열화 업체로 출하되고 계

열화 업체는 이를 자체 도계장에서 도계하거나 임도계하여 닭고기 상태로 중간 상인이나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계열 주체라면 생닭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일이 없을 것이므로 생닭 가격은 계열화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닭고기 가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로지 육계 단독 경영 농가가 판매하는 가격하고만 관련이 있다.

3. 닭고기 가격 결정 시스템

닭고기 가격 결정 시스템의 문제는 닭고기 가격이 관행적으로 생닭을 기준으로 결정 고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닭고기 가격은 생닭 시세와 생닭을 도계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을 합한 값을 육계수율로 나누고 여기에 도축에 드는 제비용을 합하여 결정된다. 즉,

$$P_t = \left\{ (C_{t-1} + C_{trans}) \frac{1}{g} + C_{slt} \right\} Q \quad (\text{식-1})$$

여기에서

P_t = t 일의 닭고기 가격

C_{t-1} = 1일전의 생닭 가격

C_{trans} = 생닭 운송 비용

C_{slt} = 도축 비용

g = 정육 환산율

Q = 중량

이렇게 계산되어 고시된 닭고기 참고 가격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전파되므로 모든 유통 참여자는 이 고시 가격을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닭 가격이 떨어졌을 때 관행과는 달리 계열 주체가 닭고기 생산 원가에 마진을 붙인 대리점 가격을 제시할 경우 대리점 등 유통 참여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일반 제조품이 그러하듯이 닭고기도 계열 주체가 계열 농가가 생산한 생닭을 원료로 하여 여기에 가공 과정인 도축 과정을 거쳐 닭고기를 생산하고 여기에 다시 적정 이윤을 붙여 대리점 등 유통회사에 출하하는 구조가 정상적인 구조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닭고기 가격은 관행적으로 시중 생닭 시세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처럼 닭고기 공장도 가격과는 별도로 생닭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발표된 가격이 존재함으로써 닭고기 공급자(계열 주체)와 닭고기 수요자(대리점 등 유통업체)간에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닭고기 가격이 닭고기 공장도 가격보다 낮게 고시될 때는 그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고 닭고기 유통 참여자의 마진도 불안정하여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나아가서 육계 계열 주체가 도산될 경우 육계 사육 농가도 자유로울 수 없다.

또 하나 문제는 여기에서 적용되는 수송 비용이나 도계 비용이 몇 년 동안 변동하지 않고 고정된 채 인용되고 있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Table 4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육계 유통 참여자 마진율을 추정한 것이다. 시나리오 I 은 생닭 가격이 kg당

Table 4. Margins in chicken meat marketing by scenarios in Korea

(Unit: won)

Scenarios	Live chicken price	Chicken carcass price	Integrator's margin (%)	Selling agency price	Selling agency margin (%)	2nd agency price	2nd agency margin (%)	Consumer's price
I	800	1,723 ¹	-557 (-24.4)	1,723	577 (33.5)	2,300	1,200 (52.2)	3,500
II	1,800	3,261 ²	980 (43.0)	3,261	239 (7.3)	3,500	1,000 (28.6)	4,500
III	1,217.5 ³	2,273.0 ⁶	-279 (-12.3)	1,994	-	-	1,631 (81.8)	3,625
				(Wholesale price in '07)				(Retail price in '07)
IV	1,150 (Live chicken production cost)	2,280 ⁵	114 ⁴ (5.0)	2,394	606 (25.3)	3,000	1,000 (33.3)	4,000

¹ {(800 + transport cost 60) / conversion rate 0.65} + slaughtering cost 400 = 1,723.

² {(1,800 + transport cost 60) / conversion rate 0.65} + slaughtering cost 400 = 3,261.

³ Live chicken market price + transport cost in 2007 = 1,217.5 won/kg.

⁴ Applied 5% marketing margin.

⁵ Live chicken production cost 1,150 won + slaughtering cost 1,130 won = 2,280 won/kg.

⁶ {(1,217.5) / conversion rate 0.65} + slaughtering cost 400 = 2,273.

800원으로 형성된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 현행 닭고기 가격 결정 시스템 하에서는 닭고기 가격은 1,723원/kg [(생 닭시세 800원 + 운반비 60원)/수율 65% + (도축 제비용 400원)]으로 고시되어 계열 주체가 이 가격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 560원/kg의 적자(-24.6%)를 보지만, 대리점의 경우 580원/kg의 마진(33.8%)을, 2차점의 경우 1,200원/kg의 마진(52.2%)을 챙겨 소비자 가격은 3,500원/kg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나리오II는 생닭 가격이 kg당 1,800원으로 형성된 최상의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 닭고기 가격은 3,260원/kg으로 고시되어 계열 주체가 이 가격에 따를 것이고, 이렇게 되면 980원/kg의 마진(43.0%)을 챙길 수 있지만 대리점의 마진(7.4%)은 최악의 시나리오(580원/kg)보다 낮은 340원/kg을, 2차점의 경우도 최악의 시나리오(1,200원/kg)보다 낮은 1,000원/kg의 마진(28.6%)을 챙겨 소비자 가격은 4,500원/kg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서 생닭 가격이 최상일 경우 유통점의 마진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계산되었다. 생닭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여 상승분을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나리오III는 실제로 한국계육협회가 발표한 2007년 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293일간 운임 포함 평균 생닭 가격(1,217.5원/kg)을 기준한 시나리오이다. 운임 포함 평균 생닭 가격 1,217.5원/kg에 해당하는 닭고기 고시 가격 2,273.0원/kg [(1,217.5/0.65) + 400]으로 발표되었을 것이고, 2007년 실제 닭고기 평균 도매 가격은 1,994원/kg으로 나타났으므로 육계 계열 주체는 닭고기 kg당 279원(2,273 - 1,994원)의 적자를 시현하여 -12.3%의 마진율을 창출했을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로써 악화되었을 육계 계열 주체의 수익성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시나리오IV는 생닭 가격을 기준하여 닭고기 가격을 정하지 않고 닭고기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적정 이윤을 인정해 주는 가상적인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 계열 주체의 생닭 생산 원가는 1,150원/kg, 도계 관련 총 비용은 1,130원/kg으로 알려져 있는 바, 닭고기 생산 원가는 2,280원/kg이 되고 여기에 마진율을 5%로 가정할 경우 대리점 가격은 2,394원/kg이 되어 시나리오 I(1,720원/kg)보다는 높고, 시나리오 II(3,260원/kg)보다는 낮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이어서 2차점 가격은 3,000원/kg, 소비자 가격은 4,000원/kg이 될 것으로 가정하면 현행 닭고기 가격 결정 시스템(시나리오 I)에서 보다 훨씬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Table 4 참조).

닭고기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마련하지 않고, 관행대로 생닭 가

격을 기준으로 한 닭고기 가격 결정 체계 유지를 고집한다면 육계 농가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지만 육계 유통업자, 육계 계열화 업체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어 육계 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현재의 생닭 가격 중심의 닭고기 가격 결정 시스템을 닭고기 수요와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닭고기 가격 결정 시스템으로 변경, 개선해야 한다.

4. 한국 닭고기 가격 결정 시스템 개선

1) 외국의 닭고기 가격 결정 시스템

미국도 닭고기 가격 결정 시스템이 정착되는 데에 많은 시행 착오를 겪었다. 1960년대 이전만 해도 군소 업체들이 많았고, 생닭 시장이 90%를 점하였다. 이때는 저장 기간, 기상 상태, 운송 문제로 닭고기 가격 변동이 심했으므로 현재 한국에서처럼 생닭을 기준하여 가격이 결정되었다. 그 후 1960년대에는 12개 도시 평균 생닭 가격을 미국 농무부(USDA)가 취합하여 고시하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유통 당사자들이 운송비, 닭 사이즈, 품질 등을 고려한 흥정에 의하여 닭고기 가격이 결정되었다. 그 후 "A&P"와 같은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가격 결정의 해결사(Price setter) 역할을 하기도 했다. 즉, 대형 슈퍼마켓의 닭고기 가격이 미국의 닭고기 가격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1970년대에는 미국의 육계 산업이 계열화 체계에 의하여 대형화되면서 타이슨(Tyson)이나 홀리팜스(Holly Farms)와 같은 닭고기 전문회사가 등장하였다. 이때는 대형 슈퍼마켓 가격보다는 우르너 배리(Urner Barry)사가 고시하는 고시 가격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면서 우르너 배리(Urner Barry) 고시 가격이 미국의 닭고기 가격의 기준이 되었다.

1980년대에는 미국의 육계 산업은 가공 산업으로 발전하였고, 1990년에 들면서 타이슨을 포함한 몇몇 회사가 시장 가격이 아닌 자사의 닭고기 생산 원가를 기준하여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했다.

미국 타이슨사의 닭고기 가격은 부분육에 의해 시장 상황(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플랜트 매니저(공장장)가 가격을 결정 발표하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대리점 가격이 결정된다.

일본에서는 쉐농 치킨 푸드 주식회사(Zen-Noh Chicken Foods Corporation)가 매일 경제 일간지에 자사 닭고기 희망 가격을 발표함으로써 전국의 육계 가격이 이를 기준하여 결정된다.

2) 닭고기 가격 결정 시스템 개선 대책

한국 닭고기 가격이 생닭 가격을 기준하여 결정되고 계열

주체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면 생닭 가격과 상관없이 85%에 해당하는 닭고기가 15%에 해당하는 닭고기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셈이 되어 마치 “꼬리가 개를 흔드는 꼴”이 된다. 더구나 이러한 가격 구조 하에서 생닭 시세가 계속 낮게 유지되는 불황이 지속된다면 계열 주체가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여 도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폐해는 계열화 사업에 참여한 생산 농가도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문제는 육계 공장도 가격에 해당되는 닭고기 생산 원가를 누가 얼마나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여 제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이 있다.

- ① 미국의 타이슨 사와 같은 대형 육계회사가 자사의 닭고기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책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전국의 닭고기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 타이슨 사에 해당되는 회사가 어느 회사일지는 업계 스스로가 판단할 일이지만 이를 놓고 업체 간의 갈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
- ② 일본의 닭고기 가격 결정 사례를 본받은 방식이다. 일본 젠노 치킨푸드사와 같이 공공적인 특징을 가진 경영체로 하여금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일 닭고기 희망 가격을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통하여 발표케 하고 이를 닭고기 거래에서 참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NH사가 거론될 것이나, NH사 닭고기 시장의 점유율이 5%에 지나지 않는 점과 NH사의 공공성을 다른 업체들이 인정해 주느냐가 문제이다.
- ③ 닭고기 가격 결정 방식은 아니나, 계란의 가격 결정 방식에서 그 아이디어를 참고할 수도 있다. 미국의 계란 가격은 Chilson's Management Controls(CMC)사가 매 분기마다 제시하는 국내 계란 평균 생산비(National average cost)를 국내 표준 가격(National standard price)으로 하여 결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어느 한 기관이 육계 평균 생산비와 평균 도계 비용을 발표하면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2007년 말 현재 한국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매년 육계생산비를 발표하고 있어서 공공성을 높이 살 수는 있으나, 발표 빈도가 1년에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과,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관련하지 않은 비용(수송비 및 도축비)은 어느 것을 쓸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상의 방식 중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에서 실제로 큰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는 일본 젠노 치킨푸드사의 방식이

한국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적 요

한국의 닭고기 가격은 관행적으로 전날 생닭 가격 시세와 운반 비용을 합한 값을 육계 수율로 나누고 여기에 도축 제비용을 합하여 계산, 이를 고시하고 이 고시된 가격이 유통 당사자들의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한국의 육계는 85% 정도가 계열화 생산으로 이루어지므로 생닭 시세는 계열 주체와는 무관한 가격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닭고기 유통 단계별 이해 당사자의 손익을 따져 보면 생닭 가격이 낮으면 계열 주체는 적자를 보지만, 대리점 마진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반대로 생닭 가격이 높으면 계열 주체는 흑자를 보지만, 대리점 마진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생닭 가격 인상을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생닭 가격과는 관련이 없는 계열 주체가 생닭 가격 등락에 따라 그들의 손익이 좌우되는 모순을 들어낸다.

따라서 닭고기 가격은 생닭 가격과는 무관하게 닭고기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적정 이윤을 붙여 공장도 가격을 결정 대리점으로 넘기는 가격 결정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매 가격이 없는 닭고기 시장에서 거래에 기준이 될 만한 가격을 정하고 이를 널리 고시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일본 젠노 치킨푸드사와 같이 공공적인 특징을 가진 경영체로 하여금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일 닭고기 희망 가격을 발표케 하고 이를 닭고기 거래에서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도 생닭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닭고기 가격 결정 방식을 버리고 NH사로 하여금 매일 닭고기 희망 가격을 발표케 함으로써 닭고기 거래의 기준이 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물론 NH사의 닭고기 시장 점유율은 5%에 지나지 않지만 그 공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NH사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이기 때문이다.

사 사

이 논문은 필자 등이 공동으로 연구한 한국축산경제연구회, 2008 한국의 닭고기 가격 결정 구조를 재검토한 것이다.

인용문헌

김정주 2008 FTA 이후 축산의 변화와 대응전략(양계부문).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보고서.
김정주 2008 한국의 닭고기 가격 결정구조. 한국축산경제연
구원 보고서.
김정주 2007 계란의 가격 결정 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가금

수급안정위원회 보고서.
김정주 2004 양계산물의 유통 및 소비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가금수급안정위원회 보고서.
농수산물 유통공사 2006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농수산물 유통
공사. 서울.
(접수: 2008. 9. 13, 수정: 2008. 10. 18, 채택: 2008. 10. 20)